

# 근세 동아시아 사상공간과 후지와라 세이카\*

이호윤\*\*  
hopiti777@hanmail.net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심학의 공시적 전개       |
| 2. 후지와라 세이카의 사상     | 3.1 명조 정주학의 심학화                |
| 2.1 후지와라 세이카의 사상형성  | 3.2 조선사상계의 심학화                 |
| 2.2 후지와라 세이카와 조선주자학 | 4. 나오며-동아시아의 지식 네트워크와 후지와라 세이카 |
| 2.3 후지와라 세이카의 심학사상  |                                |

主題語: 후지와라 세이카(Fujiwara Seika), 근세일본유학(Confucianism of Tokugawa Period), 조선유학(Confucianism of Joseon Dynasty), 동아시아 유교사상권(Area of East Asia Confucianism), 일본사상사(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 1. 들어가며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는 카마쿠라시대(鎌倉時代)의 가인(歌人) 후지와라 테이카(藤原定家, 1162-1241)의 후예인 레이제이 타메즈미(冷泉為純, 1530-1578)의 3남으로 하리마노쿠니(播磨国; 現兵庫縣)에서 태어났다. 세이카는 7세에 타츠노(龍野)의 케이운지(景雲寺)에 들어가 선불교에 입문하였으며 13, 4세에 교토(京都)의 쇼코쿠지(相国寺)에 들어갔다. 그러나 1578년 아버지와 형이 미키성주(三木城主) 벳쇼 나가하루(別所長治, 1558?-1580)와의 전쟁에서 전사하여 영지(領地)를 상실하자 학문에 전념하여 학승(學僧)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세이카는 1590년 조선에서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하여 교토의 다이토쿠지(大徳寺)에 머물고 있던 허성(許箴, 1548-1612)과의 교류를 통해 유교를 확신하고 불교를 비판하였고, 1594년에는 도명(渡明)을 결의하지만 폭풍우를 만나 실패하고 만다. 그 후 세이카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

\* 이 논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 침몰선 정밀탐사 기획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project 'Deep Sea Shipwreck Exploration Project Plan' of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KIOST).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의 유학자 강항(姜沆, 1567-1618)과 교류했다. 세이키는 강항과의 통교를 통해 유교의 의복제도에서부터 공자제사에 이르기까지 신유학(新儒學) 전반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1600년 일본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천하통일을 이룬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3-1616)앞에 심의도복(深衣道服; 儒服)을 입고 나타나 유자선언(儒者宣言)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세 일본주자학의 개조(開祖)로 불리게 되었다.

세이키는 허성, 강항 등 조선의 거유(巨儒) 이퇴계(李退溪, 1501-1570)의 영향을 받은 유학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유교를 확신하였으며 이퇴계가 후어(後語)를 기록한 조선본(朝鮮本) 『연평문답(延平問答)』으로 주자학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퇴계의 주리설(主理說)·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에 공감하였으며 이퇴계의 호발설(互發說)을 지지하는 등 이퇴계 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성, 강항으로부터 조선 주자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조선의 거유 이퇴계사상에 공명한 후지와라 세이카였지만 그의 사상을 살펴보면 정주학(程朱學)을 신봉하면서도 육왕학(陸王學)을 수용하는 주륙절충적(朱陸折衷的)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후지와라 세이카의 사상을 동아시아에서의 심학사상(心學思想)의 공시적(共時的) 전개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후지와라 세이카의 사상

### 2.1 후지와라 세이카의 사상형성

후지와라 세이카의 이름은 슈쿠(肅), 자는 렌푸(斂夫)이며 1561년 지금의 효고현(兵庫縣)인 하리마노 쿠니(播磨國)에서 하리마 호소카와쇼(播磨細川庄; 지금의 효고현 미키시[兵庫縣三木市])의 영주 레이제이 타메즈미(冷泉為純)의 아들로 태어났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카마쿠라 시대의 가인(歌人)으로 유명한 후지와라 테이카(藤原定家, 1162-1241)의 12세손이다. 세이카는 7세에 타츠노(龍野)의 케이운지(景雲寺)에 들어가 선불교(禪佛敎)에 입문하였으며 13,4세 즈음 교토(京都)의 쇼코쿠지(相國寺)에 들어갔다. 세이카는 1578년 4월 1일 아버지 레이제이 타메즈미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의 명령을 받은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의 중국방면군(中國方面軍)에 협력하여 우레시노성(嬉野城)에서 농성하고 있었는데, 히데요시가 원군을 보내지 않아 미키성주(三木城主) 벳쇼 나가하루(別所長治)의 공격으로 사망하여 영지(領地)를 상실하자 학승(學僧)의 길을 걷게

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쇼코쿠지에서 중세이래 교토 고잔(五山) 선승(禪僧)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주자학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이카에게 있어 사상적 전환점이 된 것이 1590년 통신사 서장관(書壯官)의 임무로 일본의 다이토쿠지(大徳寺)에 머물고 있었던 허성과의 만남이었다. 허성은 동인의 중심인물인 허엽(許曠, 1517-1580)의 아들이다. 허엽은 허성 외에도 1574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하곡조천기(荷谷朝天記)』를 남겼으며 당대의 친재로 자부하였던 하곡 허봉(荷谷 許篈, 1551-1588) 과 중국뿐만 아니라 에도시대 일본에서도 시집 『난설헌집(蘭雪軒集)』이 간행될 정도로 이름을 떨쳤던 여류시인 난설헌 허초희(蘭雪軒 許楚姬, 1563-1589), 그리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약 4000여권의 서적을 구입하여 독과한 홍길동전의 저자 교산 허균(蛟山 許筠, 1569-1618)을 자녀로 두었다.<sup>1)</sup> 후지와라 세이카는 허성이 머물고 있었던 다이토쿠지에 찾아가 먼저 만남을 청하였고 허성과 필담창화(筆談唱和)를 나누며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주불객유(主佛客儒)의 세계에서 주자학을 접하였던 후지와라 세이카는 이런 허성과의 학문적 교류로 인해 신유학에 대한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으며 유교를 확신하게 되어 후일 유자선언(儒者宣言)을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sup>2)</sup> 1593년에는 에도막부를 개창한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초빙으로 에도에서 『정관정요(貞觀政要)』, 『한서(漢書)』, 『십칠사상설(十七史詳說)』을 강의하여 치란흥망(治亂興亡)의 도리를 밝혔다. 3년 후인 1596년에는 중국에 가기 위해 도명(渡明)을 결의하여 출항에 나서지만 폭풍우를 만나 사츠마(薩摩)의 키카이가시마(鬼界ヶ島)에 표착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후지와라 세이카와 허성의 만남이 있는 지 2년 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으로부터 수많은 서적, 불화, 활자, 도자기 및 조선인을 일본으로 끌고 갔다. 이러한 조선에서 일본으로 들어간 서적, 사람으로 인해 조선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에서는 에도 문화를 꽃피우는 자양분 역할을 하였다. 후지와라 세이카의 불교로부터의 유교 독립 선언도 이러한 환경에서 탄생한 것이다. 특히 강항과의 교류는 후지와라 세이카의 유학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퇴계 사상에 공명한 성우계(成牛溪, 1535-1598)의 문인인 강항은 1597년 의병장으로 참전 하였던 남원성 전투의 패전으로 이순신 휘하의 수군으로 합류하던 중 토도 타카토라(藤堂高虎, 1556-1630)가 지휘하는 일본 수군의 포로가 되어 순천, 쓰시마(對馬島) 등을 거쳐 시코쿠(四国) 오즈성(大洲城)에 유치되었다. 1598년 토도 타카토라의 수군이 조선에서 물러나고 7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강항은 오사카성(大坂城)으로 옮겨지고 1599년 토도 타카토

1) 郭貞禮(2011)「許氏五文章家の 文学的背景과 活動에 関한 研究」慶熙大学校博士学位論文

2) 阿部吉雄(1965)『日本朱子学と朝鮮』東京大学出版会

라의 야시키(屋敷)가 있는 교토의 후시미성(伏見城)으로 옮겨졌다.<sup>3)</sup>

후시미 성에서 후지와라 세이카는 타츠노 성주(龍野城主) 아카마츠 히로미치(赤松広道) 등과 함께 강항의 후원자가 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과의 교류를 통해 주자(朱子, 1130-1200)의 신주(新註)에 의한 『사서오경왜훈본(四書五經倭訓本)』간행을 계획하였으며, 아카마츠의 저택에서 석전의례(積奠儀禮, 공자제사)도 전수받았고, 과거제도, 심의도복(深衣道服, 儒服)의 제작법과 착용법을 익히는 등 학문에서 의례까지 신유학(新儒學)의 모든 것을 전수받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1600년 5월 강항이 조선에 귀국한 후 세이카는 처음으로 심의도복을 입고 토쿠가와 이에야스 앞에 나타나 이에야스 측근의 학승과 유불논쟁을 벌였다. 이것으로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에서 최초로 유교의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sup>4)</sup>

중세 고잔 승려들에 의해 불교의 부수학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중세의 하카세케(博士家)에서 폐쇄적으로 연구된 유학은 이렇듯 후지와라 세이카에 이르러서 최초로 독립적인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불교 도교가 주도하던 중국에서 부수적 학문 취급을 받던 유학이 송의 주렴계(周濂溪, 1017-1073)에 의해 독자적 철학체계를 완성하여 독립된 지위를 굳히게 된 것과 같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유자선언은 당시 불교적 세계관이 뒤덮고 있던 일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이 나타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2 후지와라 세이카와 조선주자학

나는 오랫동안 석가의 가르침에 따랐다. 그런데도 마음에 의문이 있었다. 성현의 서를 읽고서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진리의 길(道)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륜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불교는 이미 인(仁)을 잘라 버렸고 또한 의(義)를 없앴다. 이것이 불교를 이단으로 보는 이유이다.<sup>5)</sup>

후지와라 세이카는 불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유교로 전향했다. 그리고 1600년 유복을 입고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알현했을 때 쇼코쿠지의 승려 사이쇼 쇼우다이(西笑承兌, 1548-1608)에 의해

3) 박맹수(2010) 「수은 강항이 일본 주자학 발전에 끼친 영향-후지와라 세이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35

4) 阿部吉雄, 앞의 책

5) 我、久しく釈氏に従事す。しかれども心に疑ひあり。聖賢の書を読み、信じて疑はず。道、果してここにあり。あに人倫の外ならんや。釈氏は既に仁種を絶ち、また義理を滅ぼす。これ異端たる所なり(林羅山(1975) 「惺窩先生行状」 『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 林羅山』岩波書店, p.191)。

진리가 있고 속세가 있다. 당신은 진리를 버리고 속세로 돌아갔다. 나는 단지 승려를 잃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림(僧林)을 생각하여 이를 애석하게 생각한다. 6)

라고 환속을 비판 받았다. 이에 대해 세이카는

불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종교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가 있다. 일반 세상이 있으며 출가(出家)의 세상이 있다. 만약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즉 인륜은 모두 진리이다. 아직 군자를 일러 세속적이라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승도가 세속적이 되는 것이다. 성인이 어찌 인간세상을 폐하랴. 7)

라고 반론하여 유자로서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렇듯 불교를 비판하고 유교 전향을 선언한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반적으로 근세일본 주자학의 개조로 불리운다. 그러면 근세일본 주자학의 개조로 불리는 후지와라 세이카는 주자학의 근본 원리인 이기론(理氣論)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지 먼저 살펴보자

세이카는 학문의 도(道)는 의리(義理)를 분별하여 이일분수(理一分殊)로서 본을 삼는다고 말했다.<sup>8)</sup>

무릇 천도(天道)는 이(理)이다. 이(理)가 하늘에서 아직 사물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천도(天道)라고 한다. 이(理)가 사람의 마음에서 아직 반응하지 않은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 성(性)은 도한 이(理)이다. 인의예지인심(仁義禮智人心)의 성은 무릇 원형리정(元亨利貞)의 천도(天道)라고 말을 달리 하지만 실상은 하나이다. 무릇 사람이 이(理)에 따르면 천도(天道)안에 있게 되어 천인합일(天人合一)하게 된다.<sup>9)</sup>

---

6) 真あり俗あり。今、足下は真を棄てて俗に還れり。我、ただに執仏・拈錘の手を惜しむのみならず、また叢林のためにこれを惜しむ (『惺窩先生行状』위의 책, pp.191-192).

7) 仏者よりこれを言へば、真諦あり、俗諦あり。世間あり、出世間あり。もし我を以てこれを觀れば、即ち人倫は皆真なり。未だ君子を呼んで俗とするを聞かず。我、恐らくは僧徒乃ちこれ俗ならんことを。聖人、何んぞ人間世を廢せんや(『惺窩先生行状』위의 책, p.192).

8) 惺窩云フ、學問ノ道ハ義理ヲ分別シテ、理一分殊ヲ以テ本トナス。(堀杏庵『杏陰稿』卷四、澤大洋(1999)『近世儒學政治思想の成立-藤原惺窩と林羅山、及びその門流』『東海大學紀要、政治經濟學部』31, p.66)

9) 夫レ天道ハ理ナリ。此ノ理、天ニ在リテ未ダ物ニ賦セザルニヨリ天道ト曰フ。此ノ理、人心ニ具ハリテ、未ダ事ニ応ゼザルニヨリ性ト曰フ。性亦タ理ナリ。蓋シ仁義禮智人心ノ性ハ、夫ノ元亨利貞ノ天道ト名ヲ異ニシテ、其ノ實ハ一ナリ。凡ソ人、理ニ順ヘバ、則チ天道其ノ中ニ在リテ、天人一ノ如キ者ナリ。(五事ノ難『惺窩先生文集』卷之九、澤大洋, 앞의 논문, p.66)

세이카는 주자학의 근본 원리인 천리(天理)=원형리정(元亨利貞)의 우주의 원리=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인심(人心) 속의 이(理)=성(性) 이라고 설명되는 성즉리(性卽理)를 따르고 있으며 이일분수(理一分殊)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주자의 가르침에 충실한 ‘완전한’ 주자학자로서의 세이카의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세이카가 주자학을 확신하게 된 데에는 조선 주자학의 영향이 컸다. 허성 및 강항으로부터의 영향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데 임진왜란 때 약탈 되어진 조선본유서(朝鮮本儒書)의 영향도 막대하였다. 특히 후지와라 세이카는 이퇴계가 후어(後語)를 쓴 조선본(朝鮮本) 『연평문답(延平問答)』에서 주자학을 이해하였으며 제자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의 호를 이 『연평문답』속에서 지어주었을 정도로 이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sup>10)</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퇴계는 조선 중기의 거유(巨儒)로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특히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과 벌였던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辨)은 조선조 역사에 있어 최대의 이기철학 논쟁이었다. 이퇴계는 기고봉과의 사단칠정논변에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 거경(居敬)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세이카는 16세기 조선사상계의 최대의 논쟁이었던 사단칠정논변중 이퇴계의 호발설(互發說)<sup>11)</sup>을 지지하고 있다.

어느날 이퇴계의 사단칠정논을 세이카 선생님에게 보여주었다. 세이카 선생님은 사단은 이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다는 이 설이 맞다. 이것을 『곤지기(困知記)』에서 말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퇴계의 설이 나정암(羅整庵)의 설보다 낮다 라고 하였다.<sup>12)</sup>

그런데 이퇴계의 호발설은 1차 사단칠정논변시 기고봉이 마지막 까지 동의하지 않았으며 후일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과의 제2차 사단칠정논변 때 또한 율곡 이이의 비판을 받게 되는 설이다. 주자에 의하면 움직이는 것은 기이며 움직이게 되는 원리가 이이기 때문에 이는 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주자학의 이기론과 모순되는 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이퇴계는 ‘이발(理發)’ 이 두 글자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순선무악(純善無惡)인 이(理=性=仁義禮智)의 단서이며 인간의 도덕적 감정인 사단지심(四端之心=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과 가선가악(可善可惡)인 기(氣)의 영향을 받는 일반감정인 칠정(七情=

10) 阿部吉雄, 앞의 책

11)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退溪集』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

12) 一日惺齋(惺窩)に示すに、惺齋曰く、四端理に出で七情氣に出づといふ此の說是なり。これを困知記に云ふ所と比すれば、此れは彼より善しとなす(「天命図説跋」『林羅山文集』卷五十三, 阿部吉雄, 앞의 책, pp.104-105)

喜·怒·哀·懼·愛·惡·欲)을 같은 차원에 두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을 근원으로 두고 있는 주자학의 이기론은 도덕적 원리로 세상만사 삼라만상이 구성되고 운용되고 있으며 원천적인 절대선인 ‘이(理)’를 현상함으로써 인륜이 바로서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보는 학문이었다. 따라서 이퇴계가 말하는 호발설은 주자의 이기론에는 모순되지만 유교의 기본원리인 인륜중시 및 불의와의 불타협과는 합치하고 있는 것이었다.

### 2.3 후지와라 세이카의 심학(心學)사상

후지와라 세이카는 근세 일본주자학의 개조(開祖)라고 불리지만 그 학풍을 보면 주자학을 신봉하면서도 육왕학(陸王學) 즉 심즉리(心卽理) 진영의 심학(心學)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으로 인해 ‘주자절대주의(朱子絕對主義)’를 주장했던 세이카의 고제(高弟) 하야시 라잔은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서한을 보내어 승복을 벗어버리고 유자로 독립한 것을 격찬했지만 아울러 세이카가 암암리에 육상산의 학을 믿는 것을 논란하고 오로지 주자학만을 신봉해야 한다고 하여<sup>13)</sup> 세이카의 주륙절충(朱陸折衷)의 학을 비판했다.<sup>14)</sup> 즉 세이카는 심즉리(心卽理) 진영의 지행합일(知行合一)에도 공명하였던 것이다.

왕양명은 선행후지(先行後知)해야 한다는 주자의 가르침에 의문을 가지고 ‘지(知)는 행(行)의 목적이고 행은 지의 수행(修行)이다. 또한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라고 지와 행의 일치를 주장했다. 그리고 『전습록(傳習錄)』에서 ‘당신 안에 있는 양지(良知)야말로 당신의 준칙(準則)이다. 양지는 당신의 생각을 나타내며 시(是)가 시(是), 비(非)가 비(非)인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이를 속일 수 없다. 그러면 당신도 이 양지(良知)를 속일 수 없으며 진실로 그 양지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선은 보존되고 악은 떠날 것이다. 그 때 마음이 얼마나 온당쾌락(穩當快樂)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격물의 진결(眞訣)이며 치지의 실공(實功)이다’ 라고 하는 심즉리적 실천적 입장을 천명하였다.<sup>15)</sup>

그러면 세이카의 심학적 실천주의적 경향을 그의 학문관에서 먼저 확인해 보자.

아름다운 말로 그 공리하는 법을 배우고, 선행으로 실행함을 배운다. 이것을 학문하는 방법(稽古)으로 삼는다. 말과 행동은 하나이다. 공허한 말을 배워도 나를 먼저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 행하여 만물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행이며 공허함이 아니다. 실행을 배운다고 해도

13) 阿部吉雄, 앞의 책

14) 라잔은 세이카와 대결하는 자세를 일지 취했지만 결국 세이카의 문인이 되고 1605년에는 막부에 초빙이 되어 이에야스의 측근으로 봉사하게 된다.

15) 間野潜龍(1984)『朱子と王陽明 新儒学と大学の理念』清水書院

입으로 말한들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안들 몸이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허한 말이며 실행이 아니다. 말과 행동은 하나라고 해야 된다.<sup>16)</sup>

세이카는 허언을 배워도 수기치인(修己治人)하여 만물에 이르면 실행할 수 있고, 실행을 배운다고 하여도 실천하지 못하면 허언이라고 하는 언행일치론을 강조한다. 즉 학문을 하는 목적은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세이카의 윤리적 실천적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세이카의 만년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대학요략(大學要略)』이다.

『대학(大學)』은 『예기(禮記)』의 일부를 주자가 독립시켜 『논어(論語)』, 『맹자(孟子)』와 함께 『사서(四書)』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주자는 『논어』가 공자(孔子, 前551-479)의 정신을 전한 것이며, 『맹자』는 맹자(孟子, 前272?-289?)의 저술, 『대학』은 증자(曾子, 前506-436)의 학문을 전한 것, 『중용(中庸)』은 자사(子思, 前483?-402?)의 저작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서(四書)』가 공자, 증자, 자사를 거쳐 맹자로 전해지는 도통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자는 『사서』 중에서도 『대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자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대학』을 읽을 것을 권했으며 학문은 『대학』으로 시작하고 다음은 『논어』, 『맹자』, 『중용』 순이라고 하였다.<sup>17)</sup> 주자는 『대학』을 해석한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 ‘대학의 도(道)는 명덕(明德)을 밝히고, 백성을 가까이 하고, 지선(至善)에 머무는 것이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를 『대학』 ‘삼강령(三綱領)’이라고 부르고 ‘명덕을 밝히는 것,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지선에 머무르는 것(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이라고 바꾸어 불렀다. 그리고 평천하(平天下), 치국(治國), 제가(齊家), 수신(修身), 정심(正心), 성의(誠意), 치지(致知), 격물(格物)의 8개조를 『대학』의 ‘팔조목(八條目)’이라고 부르고 평천하·치국·제가를 명덕을 밝히는 방법, 수신·정심·성의의 3조목을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 치지·격물의 2조목을 지선에 머무는 방법으로 하여 『대학』의 궁극은 치지격물(致知格物)이며 치지격물에 의해 자기의 명덕을 밝히고 타인을 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불교의 출가주의(반인륜주의), 도교의 무위자연(반문명주의)과는 선을 굿는 도덕과 정치와의 일치라는 새로운 정치사상의 출현이었던 것이다.<sup>18)</sup> 이러한 『대학』에 대한 세이카의 해석을 보자. 세이카는

16) 嘉言に以りてその理を窮むるを学び、善行に以りてその事を實にするを学ぶ。これを古を稽ふとなす。蓋し言と行と二ならず。空言を学ぶといへども、己を治め人を治め、施して物に及ばせば、則ち実行なり。空言にあらず。実行を学ぶといへども、口これを言ふとも心これを知らず、心これを知るとも身これを踐まざれば、則ちまた空言なり。実行にあらざるなり。言と行と一なりと謂ふべきなり。(古今医案序『惺窩先生文集』卷之七、藤原惺窩(1975)『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 林羅山』岩波書店, p.82)

17) 間野潜龍, 앞의 책.

18) 島田虔次(1967)『朱子學と陽明學』岩波書店

명덕(明德)은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장유(長幼), 봉우(朋友)의 오륜(五倫)인 오전(五典)이다. 앞의 ‘명(明)’이라는 글자(字)에는 어둠을 밝히고 가르쳐 이끄는(明發教導) 심(心)이 있다. 오전(五典)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 형(刑)과 병(兵)이 있다. 작은 일은 형(刑)으로 다스리고, 큰일은 병(兵)으로 다스린다.<sup>19)</sup>

라고 하여 명명덕은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봉우의 오륜을 밝혀 가르쳐 이끄는 것이라고 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형(刑)과 병(兵)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오륜의 적극적 실천을 명명덕이라고 세이카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명덕이라는 것은 인륜을 가리키는 것이다.<sup>20)</sup>

명덕이라는 것은 현도(顯道)이다. 현도는 군신(君臣)의 의(義), 부자(父子)의 인(仁), 부부(夫婦)의 별(別), 장유(長幼)의 서(序), 봉우(朋友)의 신(信), 이 오륜(五倫)을 가리킨다.<sup>21)</sup>

라고 반복해서 오륜의 실천으로서의 명덕을 설명하고 있다. 세이카가 말하는 명덕은 구체적인 실천윤리를 밖으로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지는 명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를 달고 있다.

‘명덕’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허령(虛靈)하고 어둡지 않아서 모든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것이 타고난 기품에 구애되고 인욕에 의해 가려지면 때로 어둡게 되지만 명덕의 본체의 밝음은 잠시도 그 빛을 잃은 적이 없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은 명덕이 발현되는 바에 근거하여 차츰 밝혀나가 최초의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sup>22)</sup>

명덕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의예지(仁義禮智)와 같은 밝은 덕성(德性)을 지칭하고, 명명덕(明明德)은 그런 본래적 덕성을 하늘로부터 처음 받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스스로의 내면적인 덕성을 발휘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19) 「明德」ハ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ノ五倫ノ五典ナリ。上ノ「明ニスル」ト云字、明發教導ノ心アリ。五典ニシタガハザルモノアルニヨリ、刑ト兵アリ。小事ニハ刑、大事ニハ兵ナリ。(『大學要略』 위의 책, p.42)  
20) 「明德」トハ人倫ノコト也。(『大學逐鹿評』 위의 책, p.51)  
21) 「明德」トハ顯道也。顯道トハ君臣之義、父子ノ仁、夫婦ノ別、長幼ノ序、朋友ノ信、此五倫也。(『大學逐鹿評』 위의 책, p.52)  
22) 明德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但爲氣稟所拘、人欲所蔽、則有時而吳；然其本體之明、則有未嘗息者。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以復其初也。(『大學章句』)

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기론(理氣論)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구름이 없어도 티끌하나 없는 맑은 하늘과 태양이 보이듯이 가선가악(可善可惡)의 기(氣)로 이루어진 세상만물에서 순선무악(純善無惡)의 이(理)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명명덕이라고 하는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수양론(修養論)적 해석인데 세이카는 적극적 실천적 해석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세이카는 주자의 ‘신민(新民)’설을 취하지 않고

민(民)이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의 사업(四業)이다. 친(親)이라는 글자에는 친애양육(親愛養育)의 마음이 있다.<sup>23)</sup>

라고 하여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분에 맞게 친애(親愛)로서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자는 ‘지어지선(止於至善)’의 해석을

지(止)는 반드시 이에 이르러 옮기지 않는 뜻이요, 지선(至善)은 사리(事理)의 당연(當然)한 극(極)이다. 이는 명명덕(明明德)과 신민(新民)을 다 마땅히 지선(至善)의 경지에 멈추어 옮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반드시 그 천리(天理)의 극(極)을 다함이 있고, 일호(一毫)라도 인욕(人慾)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sup>24)</sup>

라고 했다. 즉 인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선(善)의 도덕적 상태에 몸과 마음이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중용』의 ‘존덕성(尊德性)’, 『맹자』의 ‘존심양성(存心養性)’과 상통하는 것이 ‘지어지선’인 것이다. 반면 후지와라 세이카는

명덕, 친민하는 근원이 나오는 곳의 이(理)를 지선(至善)이라고 한다.<sup>25)</sup>

라고 하여 명덕, 친민 즉 오륜(五倫)으로 사민(四民)을 교화(教化)하는 윤리실천의 근원(=理)을 지선이라고 하고 있다. 세이카는 ‘격물(格物)’해석에도 주자설을 취하지 않는다.

23) 「民」ハ士・農・工・商ノ四民ノ四業也。「親」ト云フ字ニ、親愛養育ノ心アリ。(藤原惺窩(1975)「大学要略」『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 林羅山』岩波書店, p.42)

24) 止者、必至於是而不遷之意。至善、則事理當然之極也。言明明德 新民、皆當至於至善之地而不遷。蓋必其有以盡夫天理之極、而無一毫人欲之私也。(『大学章句』)

25) 明德・親民ノ根源ノ出ヅル処ノ理ヲ「至善」ト云ナリ。(藤原惺窩(1975)「大学要略」『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 林羅山』岩波書店, p.43)

임조은(林兆恩)이 말하기를 이른바 물(物)이라는 것은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예기(禮記)』에 이른바 ‘사람이 사물로 변한다고 할 때의 물이다. 이른바 격(格)이라는 것은 막고 거스르는(扞格) 격이 아니다. 『서경(書經)』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닌 바를 떠난다’ 에서 쓰인 격이다. 마음이 물욕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을 비심(非心)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따라서 그 비심에서 떠날 때 물욕으로부터 떠나는(格物)것이 된다. 격이라는 것은 떠난다(格去)는 뜻이다. ……주자는 격이란 다다른 것이다. 물이란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물의 이(理)에 지극히 다가가는 것이라고 했다. 왕양명은 그 바르지 않음을 격이라고 하여 바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설로 인해 헛갈리기 쉬우나 지금 임조은의 설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에 다른 주는 섞지 않는다.<sup>26)</sup>

심상의 물욕으로부터 떠나면 자연히 지혜가 밝아져 드러날 것이다……물욕이란 티끌(塵)이다. 거울의 한점 티끌을 없애면 깨끗하고 맑음(明)을 기다리지 않고도 깨끗하게 볼 수 있다. 거울 속의 깨끗함과 맑음을 ‘허(虛)’라고 한다. 그 안에 영(靈)이 있으며 혹은 지선이라고도 한다. 『중용(中庸)』에서는 불발지중(不發之中)이라고도 한다. 『논어(論語)』에서는 일관지일(一貫之一)이라고도 한다.<sup>27)</sup>

주자는 ‘격물’을 ‘사물의 극치에 이른다’라고 해석하여 하나하나의 사물에서 그 지극한 이(理)를 궁구하는 것이었다. 주자의 격물론은 궁리(窮理)를 통하여 만물에 투영된 이(理)를 깨닫는 철학적 실천론이었으며 격물의 방법으로 독서를 제시한 바 있다.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주지주의(主知主義)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자의 격물론인 것이다. 이러한 주자의 주지주의에 회의를 느낀 왕양명에 의해 지행합일의 양명철학이 탄생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왕양명은 『대학문(大學問)』에서 격물을 ‘물(마음)을 바로 잡는다’라고 해석하여 ‘그 마음이 바르지 않음을 ‘격’이라 하고 물을 바름으로 인도한다’라고 했다. 즉 지행합일(知行合一), 치양지(致良知)의 실천적인 해석이었다.

세이키는 『대학요략』에서 이러한 주자, 양명의 격물론을 모두 인용한 후에 보다 적극적

26) 林子曰く、このいはゆる物とは、事物の物にあらざるなり。記にいはいゆる「人、物に化す」の物なり。このいはゆる格とは、扞格の格にあらざるなり。書にいはいゆる「その非心を格る」の格なり。心、物に化すること、これを非心と謂はずして何ぞ。故にその非心を格るときは物を格るなり。格とは格去の義なり。……朱子云く、「格とは至るなり、物とは猶ほ事のごときなり。極めて事物の理りに至るなり」と。王陽明曰く、「その正しからざるを格して、以て正しきに帰す」と……如此諸人ノ説ヲホクシテマギレヤスシ。今抄スル処ノ林子ガ旨ヲ略シテ抄シノブル故ニ、自余ノ注ヲマジエズ。(『大学要略』 위의 책, pp.44-45)

27) 心上ノ物ヲ格レバ、自然ニ明知生發スルゾ。……物トハ塵也。鏡中清明ナレバ、一点ノ塵ヲサレバ、明ヲ不待シテ明見スルゾ。其鏡中ノ清明ナルトコロヲ虚ト云フ。ソノ中ニ靈アリ。或ハ至善トモ云。中庸ニテハ不發之中トモ云ゾ。論語ニテハ一貫ノトモ云ゾ。(『大学要略』 위의 책, pp.54-55)

실천론인 명나라의 삼일교(三一教)의 시조 임조은(林兆恩, 1517-1598)의 격물설을 취하고 있다. 임조은은 ‘격’을 ‘떠나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여 ‘마음의 물욕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물욕을 버린다면 청명한 거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청명한 마음이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불발지중(不發之中)<sup>28)</sup>, 『논어(論語)』의 일관지일(一貫之一)<sup>29)</sup>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세이카의 심학적 경향은 문집 곳곳에서 확인이 된다.

세이카는 서간(書簡) 「여임도춘(與林道春, 『文集』卷十一)」에서 ‘양명의 시는 소탈하여(洒落)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라던가 「성과문답(惺窩問答)」에서 주립계 이후의 송학자의 학설과 함께 진백사(陳白沙, 1428-1500)의 정원(靜圓), 왕양명의 양지(良知)를 들어 ‘그 말은 다른 것 같아도 들어가는 곳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라잔과의 왕복서간에서 나정암(羅整庵)의 『곤지기(困知記)』, 설경헌(薛敬軒)의 『독서록(讀書錄)』·『경헌담기(敬軒談記)』, 구순(丘濬)의 『대학행의보(大學衍義補)』, 정신보(鄭申甫)의 『사서지신일록(四書知新日錄)』 등을 언급하고 있어 명조(明朝) 심학에 관한 폭넓은 독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세이카의 사상은 주자학뿐만 아니라 심학도 두루 섭렵하고 있었다.

이렇듯 조선 주자학이 영향을 받아 최초의 유자선언을 하여 근세 일본주자학의 개조라고 불린 후지와라 세이카였지만 그의 사상은 순수 주자학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주륙절충적(朱陸折衷的)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후지와라 세이카의 사상적 특성에 대해서 선행연구는 근세 초기의 일본주자학이 주자의 언설을 충실히 소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미숙했다고 하는 평가<sup>31)</sup> 내지는 ‘유교의 일본적 전개론’<sup>32)</sup>에 머물러 있으며 심지어 후지와라 세이카는 사실은 유학자가 아니었으며 하야시 라잔이 막부에서의 유자로서의 입지확보와 자신의 보신을 위해 세이카의 사상을 창작했다고 하는 연구마저 있다.<sup>33)</sup> 즉 후지와라 세이카가 주자의 난해한 형이상학적 이기철학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인 것이다. 이러한 주륙절충적인 세이카의 사상에 대해 다음 장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심학사상(心學思想)의 공시적(共時的) 전개’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8)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中庸』)

29) 吾道，一以貫之(『論語』理仁篇)

30) 金谷治(1975)「藤原惺窩の儒學思想」『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林羅山』岩波書店

31) 丸山眞男(1952)『日本政治思想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32) 丸山眞男(1967)『丸山眞男講義錄 第七冊』東京大學出版會

33) 今中寛司(1972)『近世日本政治思想の成立—惺窩學と羅山學』創文社

### 3.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심학의 공시적 전개

후지와라 세이카가 활동했던 16세기의 동아시아는 정주학(程朱學)과 육왕학(陸王學)이 공존하는 세계였다고 할 수 있다. 수(隋)·당(唐) 시대까지 철학체계의 결여로 인해 불교, 도교의 주변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유교는 송학(宋學)의 시조라 불리는 주렴계(周濂溪)가 「태극도설(太極圖說)」을 통하여 드디어 불·도 양교에 대항할 수 있는 철학체계를 만든 이래<sup>34)</sup>, 장횡거(張橫渠, 1020-1077), 정명도(程明道, 1032-1085)·정이천(程伊川, 1033-1107) 형제(二程)를 거쳐 이들의 사상을 집대성한 주자에 이르러 이기론(理氣論)의 완성을 보게 된다. 정주학의 핵심사상인 이기론(理氣論)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세계의 원리가 모두 이(理)라고 하는 절대선의 작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모든 현상을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이학(理學)적인 면과 심학(心學)적 면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윤리적 자기완성을 위한 거경(居敬)과 천리(天理)를 이해하기 위한 궁리(窮理)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정주학은 처음부터 이학(궁리), 심학(거경)의 양면성을 띠고 있었으며, 정주학의 심학화는 더 이상 불·도 양교와의 우주론적 대결이 의미가 없어진 16세기에 이원적 성격을 가진 정주학의 중심이 궁리에서 거경으로 옮겨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1 명조 정주학(明朝 程朱學)의 심학화(心學化)

1368년 명나라 건국 이후 영락제(永樂帝, 位1402-1424)의 정난(靖難), 방효유(方孝孺, 1357-1402)의 처형, 『성리대전(性理大全)』 편찬 및 사상통제 등의 영향으로 명조의 정주학은 형식화되었고 관학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학자들은 존재(存在) 보다는 존양(存養)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존재론적 사유보다는 인식론, 가치론적 사유를 중시하게 되었다.<sup>35)</sup> 이것은 존재론적 사유의 이기(理氣)문제로부터 인식론적 사유의 심성(心性)의 문제로 사유의 중심이 이동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궁리보다 거경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16세기 명조 사상계의 심학화는 이러한 사상적 중심의 이동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락제의 사상통제 이후 하동학파(河東學派), 숭인학파(崇仁學派) 및 진현장(陳獻章)의 백사학파(白沙學派) 등 심학파가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심학적 사상은 이(理)가 우주의 본체이며 이기이원론

34) 주자는 주렴계가 ‘맹자이후 일천년 동안 땅에 파묻혀 있던 도통을 다시 계승하여 성인의 가르침을 다시 밝혔다’라고 하여 1천4백년의 유교의 암흑시대에 종말을 고했다고 높이 평가했다.(島田虔次, 앞의 책)

35) 侯眞平(1998)「16세기 中國思想史에 있어서의 朱子學」『南冥學研究』8

(理氣二元論)으로 우주를 설명하던 전통적인 정주학적 해석에서 이는 단순한 기(氣)의 조리(條理로 설명되게 되었다. 기(氣)와 심(心)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의 주체로서 인식되어 결국 정암학(整菴學, 羅整菴, 1465-1547)·감천학(甘泉學, 湛甘泉, 1466-1560) 및 심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양명학(陽明學, 王陽明)이 탄생하게 되었다.<sup>36)</sup> 이렇듯 16세기의 중국 사상계에는 정주학과 육왕학, 이학과 심학이 공존하게 되는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었다.

### 3.2 조선사상계(朝鮮思想界)의 심학화(心學化)

이러한 심학적 경향은 ‘주자학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왕조 사상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의 유학사상은 주자학이 중심이 되어 양명학과 같은 주자학 이외의 학파는 이단시되어 탄압을 받았다고 여겨져 왔으며 주자학 일변도의 단순함이 강조되기도 했다.<sup>37)</sup> 물론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이후의 조선왕조에서의 주자학의 위치는 확고한 것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18세기에는 이른바 ‘실학(實學)’으로 불리는 주자학 안에서의 새롭고 다양한 사상적 흐름이 탄생하였고 강화학파(江華學派=양명학과)도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이상 조선 사상사가 주자학 일변도라고 보는 관점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7세기의 예송논쟁(禮訟論爭) 및 노론(老論)과 남인(南人)의 환국정국(換局政局)속의 사문난적(斯文亂賊)논쟁이 마치 조선왕조 500년 사상사의 모든 것인 양 과대 해석되어 짐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6세기의 조선사상계를 살펴보면 심학적 경향이 현저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의 정주학은 세종(世宗, 位1418-1520)대 『성리대전(性理大全)』의 전래와 간행으로 이론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세조(世祖, 位1455-1468)의 정난(靖難) 및 연산군(燕山君, 位1494-1506)

36) 尹南漢(1982)『朝鮮時代の陽明學研究』集文堂

37) 이러한 인식의 효시는 타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이하의 인설이라고 할 수 있다.

朝鮮の儒學は其の學說史から觀れば極めて簡易にして又單調である。高麗の昔より千篇一律に朱子學の天地に汨没して學者の學說も畢竟朱子の真義に合するか否かを論議するに過ぎない有様であった。従て朝鮮の儒者の価値は學說よりもむしろ其の社会的政治的に國家及社會に及ぼせる勢力に於て觀なければならぬ。換言すれば人心を支配せる力に於て偉大なりしものである。而して其の政黨と學派と結合せるに至って顯著となった。併し同時に益々思想に於ては固着し其の進歩發展性を失ふに至った。併しながら前後六百四十年朱子學一度招來せられてから終に他學派の興起を見ないで已んだといふことは其の選擇の當否は別問題として即如何に儒學の諸學派中最穩健中正國民性の特色の有力なる示頭を爲して居るものであると謂わなければならぬ(高橋亨(1924)『朝鮮儒學大觀』『朝鮮史講座』朝鮮史學會編)

이후의 사화(士禍)로 인해 조선의 사상계도 궁리적 사유의 쇠퇴와 존양적 사유의 강조로 이동한다. 즉 조선의 사상계가 이학적 정주학에서 심학적 정주학으로의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종(中宗, 位1506-1544)14년의 을묘사화(乙卯士禍)후의 유학자들의 텍스트가 『성리대전』에서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으로 바뀌고 있으며 『심경부주(心經附註)』로 집대성된 정민정(程敏政, 1446-1499)의 사상은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을 거쳐 이퇴계로 전승되었고, 같은 시기에 명의 백사학, 양명학, 정암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비판 수용된다. 유송조(柳崇祖, 1452-1512)의 『성리연원촬요(性理淵源撮要)』편찬,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도학운동(道學運動), 김안국의 『심경부주(心經附註)』애호, 박영(朴英, 1471-154)의 『백록동규해(白鹿洞規解)』, 『대학해(大學解)』찬술,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태극논변(太極論弁)」, 서경덕(徐敬德, 1489-1546), 조식(曹植, 1501-1572), 이항(李恒, 1499-1576), 이중호(李仲虎, 1512-1554), 홍인우(洪仁祐, 1515-1554), 노수신(盧守愼, 1515-590)의 심학적 경향도 이러한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인 남언경(南彦經, ?-?)이 등장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이항복(李恒福, 1556-1618), 신흘(申欽, 1566-1628), 김우옹(金宇顙, 1540-1603) 등도 양명의 문장(文章)·공업(功業)에 경도되어 있었으며 17세기에 들어서 장유(張維, 1587-1638)와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은 양명학자이면서도 조선 조정의 최고위 관직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심학의 전개는 태극논변(太極論辨) 과 인심도심논변(人心道心論辨) 및 조선조 최대의 이기론에 입각한 심성논변(心性論辨)인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辨)을 낳게 된다.<sup>38)</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퇴계의 사단 칠정에 대한 해석이 주자의 가르침과 다르며 나정암의 해석과 유사하다고 기대승이 지적하여 사단칠정논변이 시작된 것을 상기해보면 당시 조선유학의 심학적 전개의 깊이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의 붕당정치(朋黨政治)를 떠받친 東人(南人)·西人(老論·少論)의 사상적 기반도 이러한 심학적 흐름에서 나온 심성논변인 사단칠정논변에서 연원하는 것이었다.

#### 4. 나오며 - 동아시아의 지식 네트워크와 후지와라 세이카

16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심학의 전개는 송학·신유학이 추구하였던 거경궁리 중 시대적 상황에 의해 존재론적 가치인 궁리에서 인식론적 가치인 거경으로 중점이 이동함으로써 일어

38) 尹南漢, 앞의 책

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유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후지와라 세이카의 주류절충적인 사상도 이러한 사상적 흐름과 관계가 깊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후지와라 세이카 사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사료의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를 뛰어넘기 힘든 면이 있다. 즉 후지와라 세이카의 문집 및 조선유학자 강항의 『간양록(看羊錄)』 등 기본 사료에 대한 분석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와라 세이카와 교류를 했던 유학자에 대한 연구성과 및 당시의 사상적 상황을 검토해 보면 심학의 동아시아적 전개 속에서의 세이카의 사상을 자리매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토쿠지(大德寺)에서 후지와라 세이카와 교류했던 허성의 학맥을 살펴보면 아버지 허엽(許曄)을 중심으로 홍인우, 남언경, 서경덕 등과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했고 이퇴계, 이율곡, 기대승, 노수신, 윤두수(尹斗壽, 1533-1601)·윤근수(尹根壽, 1537-1616) 형제,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최경창(崔慶昌, 1539-1583) 등 당대의 명유(名儒)들과의 교류는 물론 이들과 더불어 명사접빈(明使接賓)의 임무를 맡아 명조(明朝)의 학풍을 접했다.<sup>39)</sup> 허성은 아버지 허엽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서경덕과의 교류를 통해 기일원론(氣一元論)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동생 허봉(許篈)은 척왕적(斥王的) 경향을 보이며 1574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사행에 참가해 명의 양명학자들과 활발한 논쟁을 벌였던 것을 『하곡조천기(荷谷朝天記)』에 기록했지만<sup>40)</sup> 한편으로는 양명사상 및 불교, 도교에도 경도되었으며 서경덕 계열의 문인 및 유정·사명대사(惟政·四溟大師, 1544-1610)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최고의 박학이자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는 ‘천재’ 허균(許筠)은 1614년과 1615년 의 2번에 걸친 명사행 중 명에서 400여권의 서적을 구입, 탐독하여 약관의 나이에 이미 천하의 책을 모두 읽었다고 평가되었으며 삼교(三教) 및 백가(百家)에 통관하였다. 허성의 여동생 허초희(許楚姬)는 허봉이 명에서 구입한 중국시집의 영향을 받아 시를 지었으며 이후 그녀의 시집은 허봉의 소개로 명에서 간행되었고, 1711년에는 에도일본에서도 『난설헌집(蘭雪軒集)』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sup>41)</sup>

세이카와 후시미성(伏見城)에서 교류했던 강항의 경우 그의 스승인 성우계가 이율곡과 제2차 사단칠정논변, 인심도심논변을 벌였던 주인공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강항의 사상 역시 16세기의 사상적 흐름 속에 있었다. 그리고 세이카는 조선의 유학자뿐 아니라 임진왜란 때

39) 허성의 학맥은 홍인우의 「恥齋日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尹南漢, 앞의 책)

40) 李豪濶(2011)「16世紀朝鮮知識人の『中国』認識—許篈の『朝天記』を中心に」『코리아연구』2

41) 郭貞禮(2011)「許氏五文章家の 文学的 背景과 活動에 関한 研究」慶熙大学校博士学位論文

강화회담을 위해 도일한 사용재(謝用粹), 서일관(徐一貫) 등 명사(明使)들과도 교류했다. 임진왜란때 조선에 온 명인(明人)들의 상당수도 심학자였으며 그들이 조선유학의 심학화에 끼친 지대한 영향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을 본다면<sup>42)</sup> 히젠 나고야성(肥前名護屋城)에서 세이카와 교류했던 명사(明使)들도 세이카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과 개인의 직접적 교류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및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방대한 서적 또한 이러한 16세기의 사상계를 반영하였다. 실제로 후지와라 세이카의 학문은 이러한 서적을 통해 형성 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후지와라 세이카의 주류절충적 사상은 정주학과 육왕학이 공존했던 16세기 동아시아 사상공간 속에서의 사람과 서적의 이동이라고 하는 지식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상의 공시적(共時的) 전개 및 사상연쇄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參考文獻】

- 郭貞禮(2011)「許氏五文章家の 文学的背景과 活動에 관한 研究」慶熙大学校 博士学位論文  
 박맹수(2010)「수는 강항이 일본주자학 발전에 끼친 영향-후지와라 세이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도서문화』35  
 성해준(2003)「일본주자학의 전래와 수용」『남명학연구』15  
 尹南漢(1982)『朝鮮時代の 陽明学研究』集文堂  
 侯眞平(1998)「16세기 中國思想史에 있어서의 朱子學」『南冥學研究』8  
 吾妻重二(2009)「江戸初期における学塾の發達と中国・朝鮮-藤原惺窩、姜沆、松永尺五、堀杏庵、林羅山、林鷲峰らをめぐる(特集 周縁から見た中国文化)」『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2  
 阿部吉雄(1965)『日本朱子学与朝鮮』東京大学出版会  
 石田一良(1975)「前期幕藩体制のイデオロギーと朱子学派の思想」『日本思想大系28藤原惺窩・林羅山』岩波書店  
 李豪潤(2011)「16世紀朝鮮知識人の『中国』認識-許篈の『朝天記』を中心に」『코리아研究』2  
 今中寛司(1972)『近世日本政治思想の成立-惺窩学与羅山学』創文社  
 金谷治(1975)「藤原惺窩の儒学思想」『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林羅山』岩波書店  
 澤大洋(1999)「近世儒学政治思想の成立-藤原惺窩と林羅山、及びその門流」『東海大学紀要、政治経済学部』31  
 島田虔次(1967)『朱子学与陽明学』岩波書店  
 高橋亨(1924)「朝鮮儒学大観」『朝鮮史講座』朝鮮史学会編  
 林羅山(1975)「惺窩先生行状」『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 林羅山』岩波書店  
 福間光超(1973)「近世初期儒家の排仏論-とくに藤原惺窩と林羅山を中心として」『竜谷史壇』66・67  
 藤原惺窩(1975)「古今医案序」『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 林羅山』岩波書店  
 \_\_\_\_\_(1975)「大学要略」『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 林羅山』岩波書店  
 \_\_\_\_\_(1975)「大学逐鹿評」『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 林羅山』岩波書店  
 間野潜龍(1984)『朱子と王陽明 新儒学と大学の理念』清水書院

42) 尹南漢 앞의 책

丸山真男(1952)『日本政治思想史研究』東京大学出版会

\_\_\_\_\_ (1967)『丸山真男講義録 第七冊』東京大学出版会

源了円(1978)「藤原惺窩の思想」『文化』42(1・2)

楊宏民(1995)「藤原惺窩の『格物』論について」『立命館文學』542

---

논문투고일 : 2014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114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9일

---

---

**<要旨>**


---

### 근세 동아시아 사상공간과 후지와라 세이카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는 1590년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허성(許箴)과 통교하여 유교를 확신한 후 불교를 비판하고 1594년에는 도명을 결의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 후 임진왜란시 포로가 되어 일본에 연행된 조선의 유학자 강항(姜沆)과 통교를 통해 유교의 의복제도로부터 공자제사에 이르기까지 유학·주자학 전반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1600년에는 천하통일을 이룬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앞에 심의도복(深衣道服)을 착용하고 나타나 이에야스의 측근 선승들과 논쟁을 벌여 근세일본 주자학의 개조라고 불리운다. 허성, 강항 등 이퇴계 학파의 조선의 유학자와의 통교를 통해 유교를 확신하고 조선본 주자학서 등을 통하여 이퇴계의 영향을 크게 받은 후지와라 세이카였지만 그의 사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륙절충적(朱陸折衷的)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6세기 동아시아는 양명학이 등장한 중국은 물론 ‘주자학의 나라’라고 일컬어진 조선에서도 정주학(程朱學)과 육왕학(陸王學)은 혼재하고 있었다. 조선의 경우 장유(張維), 최명길(崔鳴吉)같은 양명학자는 조선조정 최고의 관직까지 진출하였고 주자학계에서도 명나라에서 서적을 수입하고, 명사(明使)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심학중시(心學重視)의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상공간 안에서 통신사 허성과 후지와라 세이카의 통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시 조선으로부터 약탈해간 조선본서적의 영향, 일본에 포로로 연행된 강항과의 교류 등을 통해 후지와라세이카의 사상이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 East Asian thought space in the early modern and Fujiwara Seika

Fujiwara Seika is called as the founder of Japanese Confucianism after he appeared in Confucian scholar outfit and went into a dispute with Zen priests who were in the circle of Tokugawa Ieyasu. We can see that Fujiwara Seika has tendency of mixed the Philosophy of Zhu-xi and Wang Yangming but if we look into his thought closely even though he turned to Confucian scholar after he had confirmed Confucianism through reading the books of Neo-Confucianism that were published in Joseon and communicating with Joseon Neo-Confucian scholars like Huh Sung and Kang Hang. In 16<sup>th</sup> century, the Philosophy of Zhu-xi and Wang Yangming was both existed in China and Joseon, the country of the Philosophy of Zhu-xi. We can see that Fujiwara Seika's thought of mixed the Philosophy of Zhu-xi and Wang Yangming has been formed after communicating with the operator, Huh Sung, the influence of the books that Japan stole from Joseon and academic exchange between him and Kang Hang who was captured as a prisoner in Japan.